

고진영, 포틀랜드 클래식서 시즌 5승·노보기 행진 도전

최근 출전 4개 대회서 우승만 2번...모두 톱3 안에 들어

고진영(24·하이트진로)이 시즌 5번째 우승과 노보기 행진 연장에 도전한다.

고진영은 29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컬럼비아 에지워터 컨트리클럽(파 72·6476야드)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총상금 130만달러)에 출전한다.

고진영의 최근 기세는 뜨겁다. 최근 출전한 4개 대회에서 우승을 2번 차지했고 모두 톱3 이상의 성적을 올렸다.

가장 최근 열렸던 내린 캐나다 퍼시픽(CP) 여자오픈에서 고진영은 시즌 4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한 시즌 4승은 2016년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아리아 주타누간(태국·2016년 5승) 이후 고진영이 3년만에 이룬 것이다.

고진영은 이번 주 포틀랜드 클래식을 시즌 5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한국 선수의 한 시즌 5승은 2015년 박인비(31·KB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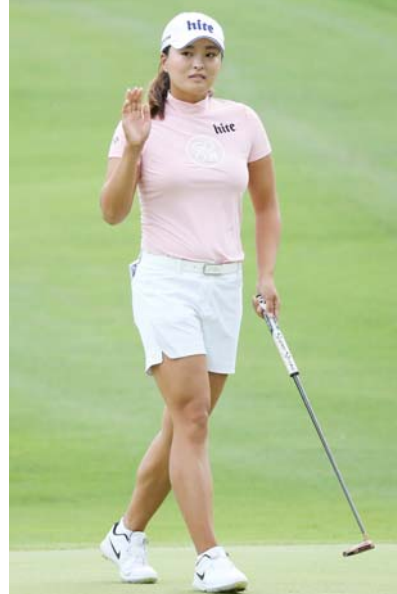
가 마지막이다.

고진영은 우승 외에도 노보기 행진을 이어가겠다고도 각오를 다졌다. 고진영은 지난 8월 브리티시 여자오픈 3라운드 2번을 보기 이후 10개월 연속 노보기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에서 72홀 노보기 플레이로 우승한 고진영은 2015년 박인비(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이후 4년 만의 대기록을 세웠다. 당시 박인비는 혼다 타이랜드 3라운드 17번홀부터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미션 힐스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 1라운드 7번홀까지 3개 대회에 걸쳐 99홀 연속 노보기 플레이를 기록하기도 했다.

고진영은 “노보기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 코스에서 어떤 성적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진영은 현재까지 이번 시즌 상금 261만8631달러(약 31억7700



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19만5000달러를 더하면서 280만달러를 넘어선다. 남은 대회 활약 여부에 따라 2007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이후 최초로 시즌 상금 300만달러 돌파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 오초아는 2007년 8승을 쓸어담으면서 436만4994달러(약 53억원)를 벌여 역대 한 시즌 최다 상금 기록을 세웠다. **뉴스1**

전남드래곤즈, K리그2

베스트 일레븐 4명 선정

한국프로축구는 28일 보도 자료를 통해 ‘하나원큐 K리그 2019 K리그2 25라운드의 MVP와 베스트 일레븐을 발표했다.

전남드래곤즈(사장 조정명)에서는 지난 부천 원정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맹활약하며 팀의 승리를 이끈 정재희 선수가 K리그2 25라운드 MVP에 선정됐다.

또 정재희 선수를 비롯한 김건웅, 박광선, 최준기 선수가 베스트 일레븐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드래곤즈는 24일 부천 원정 경기에서 정재희, 바이오, 윤용호가 연달아 골을 터뜨리며 3-0으로 승리했다.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장한 정재희는 좌우측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전남의 공격을 이끌었고 후반 6분 선제골에 이어 후반 43분 바이오의 추가골을 도왔다. **광양-김승호 기자**

‘해외 유턴파’ 김진영, 한화 토종 선발진에 한줄기 빛

덕수고 졸업 후 2011년 시카고 컵스 입단...2017년 KBO신인 드래프트 참가



깜깜하던 한화 이글스 마운드에 한줄기 빛이 내려왔다. ‘해외 유턴파’ 김진영(27)이다.

김진영은 지난 28일 청주구장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3이닝 4피안타 3볼넷 1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다.

1-0으로 앞선 6회초 1사 2루에서 승리요건을 갖추고 마운드를 내려갔으나 구원 등판한 신정락이 박병호에게 동점 적시타를 허용, 김진영의 승리가 날아갔다. 그러나 한화가 2-1로 승리하면서 김진영의 호투도 빛났다.

도망가지 않는 적극적인 승부가 돋보였다. 1회초 박병호와 제리 샌즈에게 연속 볼넷을 내주며 만루 위기에 몰리기도 했지만 박

병호는 전날 홈런 4방을 몰아치며 홈런 선두로 올라선 상황이고 샌즈 역시 홈런 2위다. 도망가는 피칭이라기보다 신중했다는 표현이 정확했다.

1회초 2사 만루 위기에서 김규민을 2루수 땅볼로 요리하며 불을 끈 김진영은 2회초와 3회초를 삼자범퇴로 끝내며 안정을 찾았다. 4회초에는 박병호를 중견수 뜯공으로 잡아낸 뒤 샌즈에게 볼넷을 허용했지만 김규민에게 병살타를 유도, 이닝을 끝냈다. 5회초 역시 1.2루 위기를 병살타로 모면했다.

무시무시한 타자 박병호와 샌즈 외에는 볼넷을 내주지 않은 피칭이었다. 대체적으로 자신감 넘치는 투구로 선발투수로서 제몫을 다했다. 무엇보다 리그 최

고의 득점력을 자랑하는 키움 타선을 맞아 위축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날 경기는 김진영의 올 시즌 첫 선발 등판이었다. 지난 21일 SK 와이번스와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예고됐으나 경기가 우천취소되며 기회를 미뤘고, 22일 SK전에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해 4이닝 1실점 호투를 펼쳤다.

22일 SK전에서도 김진영은 6-4로 앞선 6회말 승리요건을 갖추고 강판했으나 불펜이 역전을 허용, 데뷔승을 놓친 바 있다.

김진영은 덕수고등학교 출신으로 2011년 시카고 컵스에 입단했지만 2013년 방출된 뒤 2017년 KBO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 1라운드 5순위로 한화의 지명을 받았다. 이른바 ‘해외 유턴파’다.

큰 기대 속에 한화 유니폼을 입었으나 2017년 3경기(2%이닝 10실점) 등판에 그쳤다. 올 시즌도 어깨 통증으로 8월말이 돼서야 1군 마운드를 밟았다.

뒤늦게 팀에 가세했지만 확실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 김진영이다. 아직 20대인 김진영이 남은 시즌 좋은 활약을 이어간다면 한화도 희망을 갖고 내년 시즌을 준비할 수 있다. 김진영에게는 앞으로 계속 선발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뉴스1**

MLB.com “다저스 PS 1선발 류현진 있지만 커쇼가 이상적”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이 LA 다저스의 포스트시즌 1선발로 류현진(32)이 아닌 클레이튼 커쇼를 꼽았다.

MLB.com은 29일(한국시간)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이 남아 있는 17개 팀의 이상적인 포스트시즌 1차전 선발투수를 선정했다.

MLB.com은 다저스의 1차전 선발에 대해 “류현진이 이번 시즌 맹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다저스의 선택은 커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커쇼는 후반기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며 커쇼의 손을 들어줬다.



류현진은 이번 시즌 24경기에 등판해 12승 4패 평균자책점 2.00을 기록 중이다. 메이저리그에서 평균자책점 1위를 달리는 등 이번 시즌 사이영상 후보 중 한 명으로도 꼽힌다.

커쇼는 23경기에서 13승 3패 평균자책점 2.76의 성적을 올리고 있다.

‘자신감 업’ 김상식호, 농구월드컵 1승 도전

라건아 “다 이기고 싶다”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29일 2019 국제 농구연맹(FIBA) 농구 월드컵 개최국인 중국으로 향한다. 아르헨티나, 러시아, 나이지리아와 한 조에 속한 김상식호가 25년만에 월드컵 1승을 챙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의 이번 월드컵 목표는 ‘1승’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전망은 다소 어둡다. 한국과 같은 B조인 아르헨티나(5위)와 러시아(10위)는 각각 남미와 유럽을 대표하는

강팀이고 나이지리아(33위)는 한국(32위)보다 FIBA 랭킹이 한 단계 낮으나 NBA 선수를 3명이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에이스’ 라건아는 “다들 1승을 목표로 말하지만, 난 다 이기고 싶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라건아는 대표팀에서 없어서 안 될 존재. 월드컵 최종 모의고사인 4개국 국제농구대회에서도 경쟁력을 과시했다.

‘주장’ 이정현은 “평가전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월드컵에선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겠다”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4개국 대회에



서 훌륭한 활약을 펼친 김선형, 이대성, 이승현, 최준용 등 KBL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육이 넘친다. 한국은 31일 오후 9시30분(이하 한국시간) 아르헨티나전을 시작으로 9월2일 오후 9시30분 러시아전, 9월4일 오후 5시30분 나이지리아전을 각각 치른다.

스포티비는 이번 농구월드컵 한국의 경기를 모두 생중계한다. **뉴스1**

명품하는 행복의군단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